

월드컵 대장정 시작됐다

자랑스러운 선원들을 뽑은 아드보카트호가 전 국민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14일 맞을 올린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날 낮 12시 '약속의 땅'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된다.

아드보카트 감독과 김 배어백 수석코치, 압신 고트비 코치, 홍명보 코치는 선수들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11시에 모여 훈련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소집되는 태극전사는 21명이다. 11일 확정 발표된 최종 엔트리 23명 가운데 유럽에서 소속 리그 최종전을 치러야 하는 안정환(뤼스부르크)과 이을용(트라브즈폰스포르)은 각각 15일과 16일 귀국해 합류한다.

'망명' 최진철(전북)은 17일 소속 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

태극전사 21명 내일 파주NFC 집결

평가전 앞두고 체력훈련 중점 둘 듯

정이 있지만 예정대로 첫 훈련에 돌입한다. 첫 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체력과 몸 상태를 테스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드보카트 감독은 점심 식사 뒤 바로 팀 미팅을 갖고 태극전사들에게 월드컵에 임하는 정신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드보카트호 피지컬팀인 네덜란드 출신 물리치료사 윤 광연원과 2002년 한일월드컵 때 히딩크호의 파워 프로그램 도우미였

던 레이몬드 베르하이엔 피지컬 트레이너가 합류해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 2월27일 셔틀런 체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태극전사들은 심장박동 측정 장비를 가슴에 두르고 20m 왕복 달리기를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체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과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국내 1.2차 평가전인 세네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을 앞두고 한 주 동안은 체력 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있다.

태극전사들은 당게는 30여 경기에서 적게는 10경기까지 시즌을 소화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30경기를 넘게 뛰며 격전을 치렀다.

K-리그 태극전사들도 엔트리 발표 직전까지 전지훈련 13라운드를 치렀다. 피로도가 절정에 달해있을 시점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아직 훈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태극전사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구체적인 일정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전술 훈련은 다음 주 중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이터 "일본은 한국축구 성공이 부러워"



"라이벌 성공에 심기 불편"

지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에 이번 2006 독일 월드컵 목표가 4강 진출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을 의식해 나온 발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도쿄발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성공에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일본' 제하의 기사에서 '지코 고용주인 일본축구협회(JFA)의 한국보다 앞서겠다는 꿈이 지코로 하여금 이런 4강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지코는 지난 4월에 "첫번째 목표는 1라운드를 통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해낸다면 4강까지도 노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발언에 대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공동 개최국 간의 경쟁에서 패한 JFA 관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당시 JFA 관계자들은 한국의 성공에 대해 앞에서는 축하를 아끼지 않았지

만 실상은 아시아 라이벌의 성공에 심기가 불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2002년 한국이 홈그라운드에서 해냈던 성과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조별 예선 통과가 현실적으로 최대의 성과일 것이라는 게 이 통신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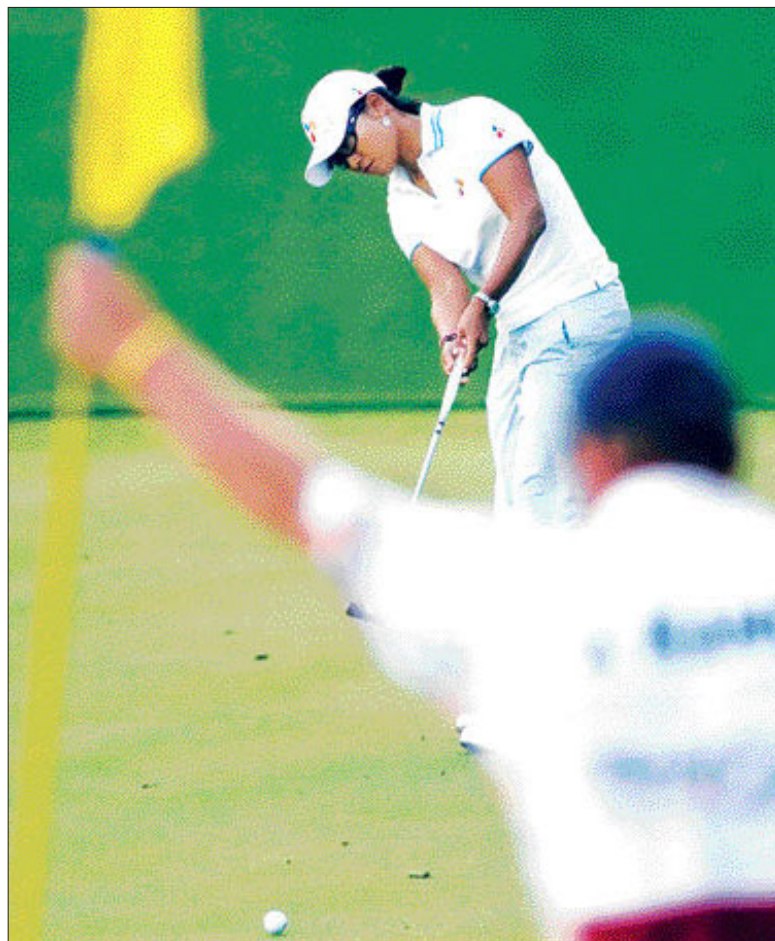
오히려 한국의 조별 예선 통과가 더 쉬워보인다는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일본 역시 지난 2004년 아시안컵 우승팀으로 저력이 있음을 입증해 보았다고 밝혔다.

토고, 35세 살루 컴백할 듯

2006 독일월드컵축구 본선 G조 한국의 첫 상대인 토고 대표팀에 독일 분데스리가 경력을 가진 35세 베테랑 스트라이커 바키루 살루가 컴백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7세에 A매치에 데뷔한 살루는 분데스리가 현 소속팀 뉘스부르크, 차두리의 소속 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강지민이 12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킹스밀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켈롭트라오픈 1라운드 17번홀에서 파 퍼트를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강지민 2위, 이미나·장정 3위

LPGA 미켈롭트라오픈 1R

올해 4승을 일궈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들이 미켈롭트라오픈 첫날 선두권에 3명이 포진하며 시즌 다섯 번째 우승을 향해 내달렸다.

12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킹스밀의 킹스밀골프장(파71·6천306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강지민(26·CJ)이 선두 카리 웹(호주)에 1타 뒤진 2위에 올랐고 이미나(25·KTF), 장정(26·기업은행)이 나란히 공동 3위를 달렸다.

강지민은 6개의 버디를 뽑아내고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7타를 때렸고 이미나는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장정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의 비교적 깔끔한 스코어카드를 적어냈다. 지난 2월 필즈오픈에서 생애 두번째 정상에 오른 뒤 다소 침체되어 있던 이미나의 상위권 진출도 한국 남자군의 시즌 다섯 번째 우승 기대에 힘을 실었다. 안시현(22)은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3일(토) ▲메이저리그(오를랜드-뉴욕Y) (07:55·Xports), <LA다저스-샌프란시스코>(11:05·Xports)

▲NBA 플레이오프(08:30·MBC ESPN)

▲서울국제 여자축구대회(서울-대만)(15:00·KBS SKY SPORTS)

▲일본프로야구(세이부-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한화-롯데)(18:30·MBC ESPN), <SK-두산>(18:30·KBS SKY SPORTS), <삼성-KIA>(21:50·SBS스포츠)

14일(일) ▲K-1 WGP 암스테르담(01:00·MBC ESPN)

▲PGA투어 EDS 바이런 벨스 챔피언십(3R)(04:00·SBS스포츠)

▲프로야구(한화-롯데)(14:00·MBC ESPN), <SK-두산>(13:30·KBS SKY SPORTS), <삼성-KIA>(13:50·SBS스포츠)

▲독일월드컵 본선 진출국 평가전 <토고-사우디>(22:55·KBC)

최경주 23위

PGA 벨스챔피언십 1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복귀한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EDS 바이런 벨스챔피언십 첫날 중위권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 코트우드밸리골프장(파70·6천847야드)에서 치른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쳤다.

5언더파 65타로 공동선두에 나선 애덤 스콧(호주), 스티브 로리(미국) 등에 4타 뒤진 최경주는 공동 2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각내영교육학) featur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duview' (에듀뷰넷) featuring education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 경찰학원) featuring training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bit Gongmwon Hakwon' (한빛공무원학원) featuring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 Hakwon' (광주고시학원) featuring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 경찰학원) featuring training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udeung Gosi Hakwon' (무등고시학원) featuring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